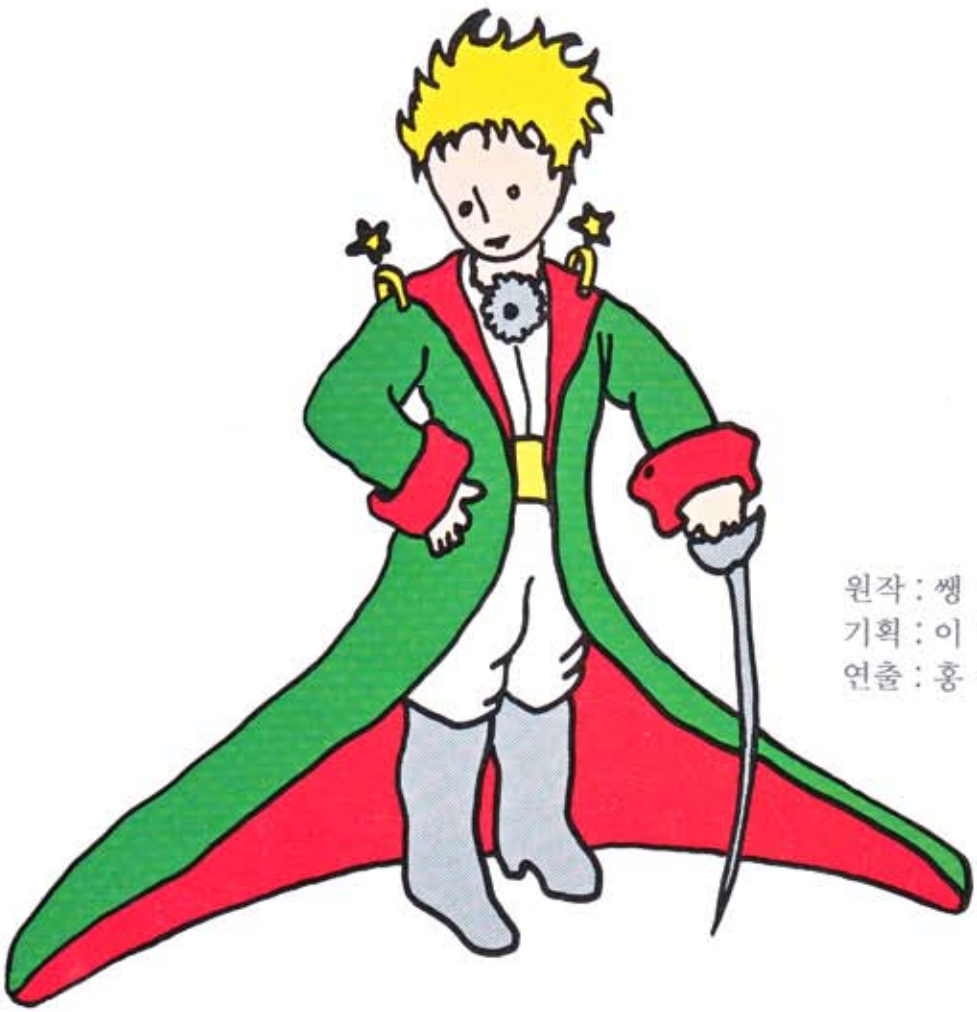
숭대극회 제18회 신입생 환영공연

어 린 왕 자



원작 : 쌩 떽쥐베리
기획 : 이 명 성
연출 : 홍 석 환

일시 : 94년 3월 10·11일(18시) 12일(14, 17시)
장소 : 숭실대학교 대학극장(제 1 공대 3층)
주최 : 숭실대학교 숭대극회
후원 : (주)서울트레드클럽, 일신문화재단, (주)동양맥주

모시는 글

극회장/홍석환

인간은 언제나 반복하여 거듭 자신의 무거운
짐을 발견하고 있다.
부조리한 행복을 느낌과 동시에 맡이다.

가지 않은 길을 후회하는 자가 될수는 없었다.
또한 더이상의 회의도 필요치 않았다.
그저 무대위에 있다는 것과
힘찬 도약의 필요성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고독할 수도 없을 만큼 춥고 배가 고팠다.
그러나
정상을 향한 투쟁,
다만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던 겨울이 아니었나 싶다.

함께 해주신 선배님, 후배님, staff, cast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94년을 함께 시작할 신입생 여러분을 진정 환영합니다.

94. 2. 22 화. 雪

작가연구

쌩 떽쥐베리(Antoine de Saint-Exupery)

1900년 6월 29일 리옹에서 출생
1926년 잡지 『은선(銀船)』에 중편소설 〈비행사〉 발표
1927년 〈남방 우편기〉 집필
1931년 〈야간비행〉이 페미나상 수상
1939년 〈인간의 대지〉발표.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소설대상 수상
1940년 〈전시조종사〉집필
1943년 뉴욕에서 〈어떤 볼모에게 부치는 편지〉 〈어린왕자〉 발표
〈성채〉집필
1944년 아네시 지역으로 출격을 떠나 돌아오지 않음
독일정찰기에 의해 격추되었으리라 추측

무릇 인간이 생각을 할 줄 알게되고 표현을 할 줄 알게 되기 시작한 이래 〈우리들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명제는 수 많은 철학자, 예술가, 학자, 종교인들에 의해 사고되어 왔고 표현의 수단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의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쌩 떽쥐베리가 이 명제에 관해 우리들의 주목을 끌기에 족한 작품들을 남기고 있다.
비행조종사가 자기의 직분인 그는 평화시에는 항공우편기를 조종하였고 전시에는 조국 프랑스를 위하여 정찰기를 조종하다가 44세를 일기로 하늘에서 산화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가 창출한 인생관을 몸소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는 이세상 누구보다 값진 인생을 영위한 사람이었고 참다운 지성인이었다. 무한한 우주공간과 지상을 연결하는 그의 행동반경이 말해주듯 그의 인간관은 그만큼 거시적이었고 종합적인 것이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지구별의 이마을 저마을, 여기 저기 우연히 생명의 씨앗이 날려와 이끼처럼 번식하여 인간의 마을을 이루고 사는 모습. 그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하는 것일까? 또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인간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일까? 다분히 종교적인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사색의 나래를 그는 하늘을 나는 동안 얼마든지 넓게 펼쳐보았던 것이다.

작품분석

길들임에 대하여

〈본질적인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본다〉
그것은 길들임의 마음이자 사랑을 보는 눈이며 시간의 본질이다.
〈너의 장미가 그다지도 소중한건 너의 장미에게 바친 너의 시간 때문〉이라는 이 시간은 단순한 시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들어있는 정성, 즉 마음을 의미한다.
여우는 이를 두고 진리라고 말하면서 인간들은 이 진리를 잊어 버렸다고 했다.
분명히 사랑은 받기보다 주는 것이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은 분명히 사랑을 주기보다 받기를 좋아한다.
받기보다는 주는 쪽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은 망각한 것일까?
사막이 아름다운건 어딘가에 숨은 우물이 있기 때문이고, 사랑이 아름다운건 마음의 창으로 받아들인 길들임으로 이루어진 까닭이라는, 이른바 〈본질적인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본다〉는 쌩떽쥐의 가르침은 각박한 현대인에게 가슴 뿌듯한 훈훈함을 안겨주는 진실이다.

—숭대극회 작품연구부—

숭대극회 제18회 신입생 환영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배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숭실대학교 숭대극회 동문회 일동

기획의 변

이명성/(기계 92)

세상에
쉬운일 하나도 없다는건
내가 숫자를 배울 때부터
느꼈건만…….

다시한번
내 인생의 깊은 교훈을 준
그런 시간이었다.

중국요리 전문점
(CHINE RESTAURANT)
연 래 춘
TEL. 816-2007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맞습니다.

로얄박스
TEL. 812-2455
●숭실대

지희네 집
●숭실대

상 도 골
TEL. 813-6235
●숭실대

무대밖의 사람들

무대감독/권태수(경영 87)

무대장치/임경화(화학 87)

무대미술/홍덕태(사학 87)

조명 I /황명식(전기 88)

의상/
이수진(경원전문대 93)

조명 II /소장호(전산 89)

조명 III /이명석(산공 93)

진행 I /박원상(독문 88)

진행 II /양현준(법 90)

진행 III /송숙희(영문 92)

섭외/정석용(경영 90)

홍보/김소희(독문 91)

소품/김진범(전산 92)

음향/류은숙(산공 92)

연출의 변

홍석환(기계 91)

슬픔은
항상 홀러 가기만 하고
열매를 맺어주지 않는 시간이
만드는 것일까?

우린 봄을 기다렸다.
꽃이 피는 봄은……

경양식 & 호프전문점
삐에로
●숭실대
TEL. 812-5768

TEL. 812-4360

그린커플
●정문
TEL. 816-5196

무대안의 사람들

이정원(국문 93)/왕, 주정뱅이, 점등이, 전철수

한 조각 자유를 옮지기 위해서……

장재연(영문 93)/어린왕자

별은 보이지 않는 꽃때문에
아름다운거구요.
사막이 아름다운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고마워요 "어린왕자"

류성환(건축 93)
/사업가, 지리학자, 뱀, 장사꾼

울고, 웃고, 화내고, 미소짓고……
많은 모습들
그 속엔 나자신뿐.

양명호(법 93)/쌩떽쥐베리

이제는 하늘을 날수있건만.
왜, 이토록 쓰라린 그리움의 눈빛을
저 별에 두어야 하는가?

손미라(사사 93)/꽃, 여우, 허풍쟁이

우리는 우리가 길들이는 것만을 이해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을 진실로 소유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니게 된다는데……
그럼 과연 나는……

정기공연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흥회소인극 "절세영웅 나폴레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탑"		
	1923년 7.7, 21	전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계인간" 엡웟청년회 주관		
	1923년 7.28, 29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1	1965논 11.	"궤궁으로 돌아오다" 황영식作	이 반	전진호
2	1968년 10.28	"Out Town" by Thom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10	"의자들" 이오네스코作		이태주
4	1969년 10.28, 29	"The Miracle Worker" v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15	"탈곡의 생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제
6	1970년 10.28, 29	"승부의 終末" 사무엘 베케트作		김양기
7 回 演 劇 祭	1971년 5.26, 27, 28, 31 6.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남목 실화" 윤조병作 "담배해독에 關하여" 안토 체홉作 "황금단지"(모다구) 푸라우디스作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作		정종화 주경서 한영제 유근혜 차현제
8	1971년 11.4, 5, 11	"시계방의 그림자" 산 오케이시作		차현제
9	1972년 5.21 22, 23	"생일파티" H.핀터作		한영제
10	1973년 15.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뒤렌마트作		고보인
11	1973년 10.25, 26, 27	"방" H.핀터作 "기도"(소극장) F.아라발作	김득남	차현제
12	1974년 5. 25, 28, 30	"정의의 사람들"(전5막) A.까뮈作		정종화
13	1975년 6.9, 10, 12, 13	"싸움터의 산책" "도스또에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안흥순
14	1975년 10.29, 30, 31	"비더만과 방화범" Max Fish作	김기엽	안흥순
15	1976년 6.1, 2, 3	"인터뷰" 장 클로드 반 이탤리作	김기남	김득남
16	1976년 10.25, 26, 27, 28	"뱀" 장 클로드 반 이탤리作		김영덕
17	1977년 6.15, 16, 17, 18	"EQUUS" 피터 쉐퍼作	백정식	김영덕
18	1977년 10.10, 11, 12, 13	"EQUUS" 피터 쉐퍼作	방영철	김영덕
19	1978년 6.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作	방영철	김영덕
20	1978년 10.24	"EQUUS"(대학연극 연극제 참가) 피터 쉐퍼作	민승기	김영덕
21	1979년 6.18, 19	"한강 2979" 김영덕作	정재호	이병국
22	1979년 9.29, 10.2	"초분" 오태석作	이정임	황정순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23	1980년 11.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作	염세범	박영권
24	1981년 6.12, 13	"노부인의 방문" F.뒤렌마트作	이종규	황정순
25	1981년 11.12, 13, 14	"달맞이꽃" 김병종作	권석근	황정순
26	1982년 5.12, 13	"깨리굴라" A.까뮈作	유태웅	지 숙
27	1982년 10.7, 8	"쉐도우 박스" M.크리스토퍼作	전희식	황정순
28	1983년 6.20, 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뒤렌마트作	전희식	김영덕
29	1983년 10.7, 8	"트레버" John Bowne作	이원우	오정열
30	1984년 5.24, 25, 26	"도가니" (Teh crucible) A. Miller作	이종규 염세범	오세환
31	1984년 10.11, 12, 13	"변신소" John stoltenberg作	차세훈	이용섭
32	1985년 5.9, 10, 11	"빈민굴" Maxim Gorky作	김상헌	이용섭
33	1985년 11.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 · 과레스키	하승민	송기범
34	1986년 6.4, 5, 6	"에쿠우스" "EQUUS" 피터 쉐퍼作	허성무	하승민
35	1986년 9.11, 12, 13	"코뿔소" F.이오네스코作	안상준	송기범
36	1987년 6.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권형진 이준석	오정열
37	1987년 9.10, 12, 13	"오해" A. Camus作	오정열	박경근
38	1988년 6.2, 3, 4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 이어령作	이충일	오정열
39	1988년 10.6, 7, 8	"안내놔?, 못내놔!" Dario. Fo作	권태수	송근호
40	1989년 5.25, 26, 27	"농녀" 윤조병作	천승범	안선후
41	1989년 10.10, 17, 18	"대성당의 살인" T.S.Eliot作	오정열	이 반
42	1990년 5.24, 25, 26	"안티고네" 장 아누이作	권태수	이준석
43	1990년 8.30, 9.1, 2	"한씨연대기" 황석영作	천승범	이영민
44	1991년 5.30, 31, 6.1	"생일파티" H.핀터作	남재우	권승혜
45	1991년 9.5, 6, 7	"날개" 이상作	양현준	권형진
46	1992년 3.19, 20, 21	"우린 나발을 불었다" 김상열作	임정화 정현웅	홍은영
47	1992년 9.17, 18, 19	"금관의 예수" 김지하作	홍석환	송근호
48	1993년 5.20, 21, 22	"세일즈맨의 죽음" A. Miller	황명식	박원상
49	1993년 10.21, 22, 23	"택시, 택시" 김상수作	소장호 이명성	박원상

신입생환영공연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10, 11, 12	"악마와 톰" W.Aning作		김홍수
2	1976년 10.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作		김득남
3	1977년 3.16, 17, 18	"출발" 윤대성作	진경호	안흥순
4	1979년 3.29, 30	"셋" 이강백作	한 철	정재호
5	1981년 3.30, 31	"ARIA DA CAPO" E.St. V. Millay作	이영환	오세환
6	1982년 3. 24, 25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락作	최시영	이용섭
7	1983년 4.16	"블랙코메디" 피터 쉐퍼作	전희식	홍여석
8	1984년 3.8, 9	"개인의 소공간" N.Holand作	차세훈	김인보
9	1985년 7.20	"ARIA DA CAPO" E.St.V.Millar作	이영민	하승민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0	1986년 3.17, 18, 19	"인형의 집" 헨리 입센作	이강영	김정은 위성신
11	1987년 3.12, 13, 14	"더러운 손" J.P 사르트르作	백윤현	박경근
12	1988년 3.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作	천승범	황금실
13	1989년 3.23, 24, 25	"축인수녀를 위한 진혼곡" A.Camus作	홍덕태	박경근
14	1990년 3.8, 9, 10	"우울증 환자" Botoh Strau-β	이영민 안상균	박혜숙 백모라
15	1991년 3.7, 8, 9	"노크노크" 줄스파이퍼作	정현웅	이범준
16	1992년 5.28, 29, 30	"꿈먹고 물마시고" 이근삼作	김상철	양현준
17	1993년 3.11, 12, 13	"예두사" Georg Kaiser作	소장호	박원상

94년도 연습일지

1월 ○일 재충전시간 12월을 보낸뒤 모두들 활기있는 모습으로 study시작

1월 △일 무대위 상황극－'개'의 독백,
방언으로 사랑나누기

1월 ○일 원상형 생일

1월 △△일 드디어 '어린왕자' 작품으로 공연 결정한 날.
첫 reading. ~~누구누구는~~ 버벅거리고……

1월 △□일 일상에의 탈출시도
'영종도'로 Membership Training 분명 1박2일인데, 장 · 양씨는 2박3일 홍씨는 3박4일이었대.

1월 △○일 세미나.
'배우예술', '연극원론' '배우수업' '무대예술입문'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던 날.

1월 □○일 93학번 우리의 정극이 군입대하던 날.
잘가라 씨세이야!!

1월 □×일 드디어 Casting－아니 1인 4역이라니?

1월 □△일 쌩퀘쥐베리의 「어린왕자」 원작 reading.
한 page씩 읽기 대회 열렸네.
손양의 「마지막 승부」－짜장면 후루루.

1월 ×○일 93 명호야 왜 태어났냐?
쌩맥주만 100잔 아작을 내고 뽕을 뺐네.

2월 □일 Body Training에 이어, 환상의 리사이틀 마련. Blues의 2세 '불러수'탄생
'여우'야 cats찍니?

2월 ○일 무대를 느끼자 우리들의 무대를…
기어다니고, 눕고, 굴르고 양말벗고 느끼자.

2월 ×일 점심끼니는 '안성탕면'이 최고야.
밥 구경하구 싶어요, 기획님!

2월 ○×일 SBS에서 드라마 촬영. 대학극장을 배경삼아.
~~누구누구는~~ TV첫데뷔라고 흥분하던 날.
그래도 연극이 최고야!!

2월 ○□일 Cast와 연출의 하나되던 날.
술을 벗삼아 느낌을 나누었지!!

2월 □○일 발렌타인 Day, 불쌍한 극회 남자들이여

2월 ○△일 류씨 술먹고 오토바이 자가운전.
꽈다당 으악!!
필름이 끊어졌다구(?) 30방 ~~꼬매놓구두~~…

2월 △□일 극회에 몸을 담으셨던 선배님들 졸업한 날.
축하합니다요.

2월 △×일 우리의 터전 무대에 '상자' 올린 날.
청하박스에 청하가 하나라도 껴있을까 눈엔 핏발이 서고…

2월 ×○일 철사조, 못질조, 놀놀이조－ 선배들의 머리와 후배들의 힘이 모여 Setting 한 날.
무대는 Cast의 삶의 현장. 사랑하자구.

2월 □□일 Setting 후 무대적응 연습.
아직은 어색한데. 잘되야 될텐데!!

2월 ○○일 우리들의 빛이 되는 조명작업 착수.
조명감독님 나 좀더 어여쁘게 비쳐주셔유.

3월 ×일 우린 휴일에도 극장을 채워나간다.
벌써 D-4일이라니? 우악－

3월 △×일 드디어 '개봉박두' 신령님 제발 덕분에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TRAD CLUB TRAD CLUB TRAD CLUB TRAD CLUB TRAD CLUB TRAD CLUB TRAD CLUB TRAD CLUB TRAD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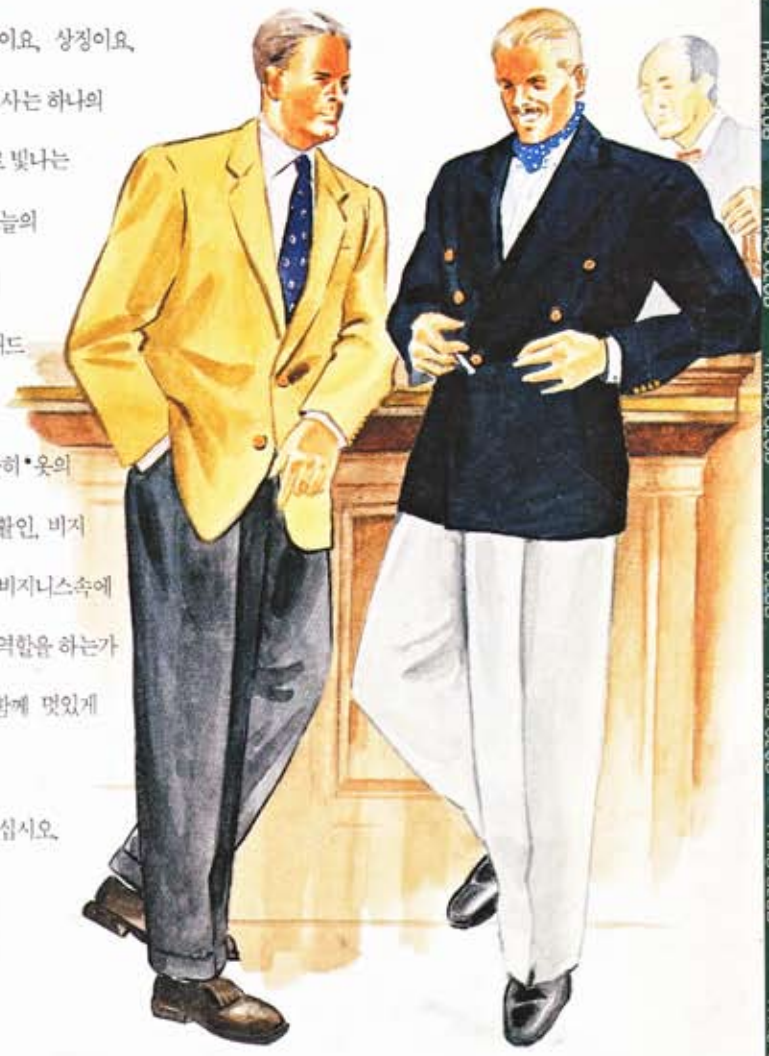
'트래드클럽문화'

트래드클럽은 단순한 옷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옷과 생활을 아울러 멋있게 하는 문화 브랜드입니다.

옷은 이미 옷이 아닙니다. 옷은 인격이요, 상징이요, 문화입니다. 문화란, 삶을 훌륭하게 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성복식문화의 정통으로 빛나는 역사를 지켜오고 있는 트래디셔널을 오늘의 문화감각, 국제감각과 하나로 교직하여 훌륭한 삶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트래드 클럽문화의 개념입니다.

때문에 트래드클럽은 저희 고객을 단순히 "옷의 구매자, 사용자"로 보지 않습니다. 생활인, 비지니스맨, 문화인으로 봅니다. 생활속에 비지니스속에 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옷과 생활을 '함께 멋있게 하는 문화브랜드— 트래드클럽.

이제 옷차림은 트래드클럽과 상의해주십시오.



막 사입어도 일년된듯한 옷,
십년을 입어도 일년된듯한 옷

Trad Club
Traditional House
(주)서울트래드클럽

(주)서울트래드 클럽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9-19 트래드클럽빌딩 대표전화 (02)542-8888

TRAD CLUB TRAD CLUB TRAD CLUB TRAD CLUB TRAD CLUB TRAD CLUB TRAD CLUB TRAD CLUB TRAD CLUB